

해외출장 보고서

I. 출장 개요

○ 출장 건명: 한-콜롬비아 산업협력 포럼 발표

○ 출장 목적:

- 지식경제부의 의뢰로 2010년 11월 19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한-콜롬비아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콜롬비아 산업협력포럼”을 개최함.
- 동 포럼은 지난 9월 콜롬비아에서 개최된 제2차 한-콜롬비아 산업협력위원회의 후속사업으로 개최되며, 현재 한-콜롬비아 FTA협상이 진행되는 기간 양국 간의 FTA협상의 긍정적 분위기 조성 및 양국 산업계의 협력을 목적으로 함.
- 동 포럼에서 “한국의 농업현황 및 시장개방 정책”이라는 주제로 한국 농업을 콜롬비아 측에 소개하고, 한-콜롬비아 FTA에 따른 양국 산업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

○ 출장 국가 및 주요 방문기관: 콜롬비아 보고타

○ 출장 기간: 2010년 11월 17일(수) ~ 11월 22일(월)

○ 출장자 인적사항

부서명	직 급	성명
글로벌협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	권대흠

○ 예 산 : 항공료 및 체재비 등 소요경비는 한·중남미 협회에서 지급

II. 출장 내용

○ 출장 일정

날짜	시간	회의 내용
11.17(수)	19시30분	서울 출발
11.18(목)	05시09분	콜롬비아 도착
11.19(금)	09시30분	한-콜롬비아 산업협력 포럼
11.20(토)	15시13분	콜롬비아 출발
11.21(일)	00시50분	미국 경유
11.22(월)	05시05분	서울 도착

○ 주요 출장 결과

I. 한-콜롬비아 산업협력 포럼 개요

1. 사업 취지

- ☐ 한-칠레FTA 발효 및 한-페루FTA협정 서명에 이어 현재 한-콜롬비아 FTA 협상이 네차례에 걸쳐 진행 중 현지 콜롬비아 기업인들에게 양국간 FTA협정이 상호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적극 홍보
- ☐ 콜롬비아 일부 산업계의 양국간 FTA협정의 부정적 시각을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를 파견, 우호적 분위기 조성 필요
- ☐ 특히, 콜롬비아 측에서 요구 관심분야 (농업협력분야, 자동차-부품분야 및 일반 협력)에 대한 국내전문가와 협력방안 논의
- ☐ 콜롬비아 주요일간지에 한-콜롬비아 FTA협정의 긍정적 효과 및 동세미나 홍보

2. 사업 내용

가. 한-콜롬비아 FTA 홍보 세미나 개최

□ 한·콜롬비아 FTA 홍보 세미나 프로그램

- 일시: 2010년 11월 19일

- 장소: 콜롬비아 상공회의소 보고타 Chapinero 대회의실

시 간	행 사
08:00~08:30	등록
08:30~09:10	개회식 개회사: Hernan Gonzalez 한-콜롬비아상공회의소 회장 축사 1: 정진호 한중남미협회 상근부회장 축사 2: 홍성화 주콜롬비아 한국대사 축사 3: Juan Guillermo Castro 콜롬비아상공회의소 이사
09:10~09:40	한-콜롬비아 FTA 협정 효과 및 경제협력 - 김원호 한중남미협회 사무총장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장
09:40~10:10	한-콜롬비아 경제협력 분야 (콜롬비아 시각) - Santiago Pardo, 콜롬비아측 FTA협상대표
10:10~10:40	Coffee Break
10:40~11:10	한국의 농업현황 및 시장개방 정책 - 권대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1:10~11:40	한-콜롬비아 자동차 및 부품산업 협력방안 - 김태년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통상협력팀 부장
11:40~12:10	Q&A
12:30~	콜롬비아 기업인 초청 오찬 -오찬사: 정진호 한중남미협회 상근부회장 -답 사: Hernan Gonzalez 한-콜롬비아상공회의소회장

나. 참석자

콜롬비아 통상부, 외무부 및 기업인 125명 참석

3. 행사 성과 및 평가

- ☐ 전통적 우방국이며 주요한 무역파트너인 콜롬비아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현재 진행 중인 한-콜롬비아 FTA 협상에 긍정적 분위기 조성
- ☐ 최근 자동차, 화학, 철강 업계 등에서 일고 있는 한국과의 FTA체결 시의 부정적 시각을 FTA협정이 기술협력 등 한국기업이 콜롬비아기업에 이상적 협력 파트너임을 부각
- ☐ 콜롬비아 유력일간지에 한-콜롬비아 FTA가 콜롬비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홍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콜롬비아 FTA협상 인지도 확대
- ☐ 콜롬비아 기업들의 대 한국 통상, 투자활동 시 직면하는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채널 활용
- ☐ 포럼에 참석한 콜롬비아 기업, 학계 및 관련기관간 양 지역 관계의 지속적인 정보교류체제 정립 및 동 포럼에 참여한 기업인들과의 협력관계 구축

II. 자료 요약

1. 한-콜롬비아 FTA 협정 효과 및 경제협력

(김원호 한중남미협회 사무총장)

- ☐ 한국은 GDP기준 세계15위 교역국으로 수출입 다변화 정책 등으로 최근 국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 한-중남미 지역간의 경제협력관계를 보면,
 - 한국은 GNI 대비 2009년 0.1%에서 2015년 0.25%까지 늘릴 예정이며
 - 2005년 IDB 가입과 현재 CATEI 가입을 위해 협상 중 임
 - 2004년 칠레와 FTA협정체결 및 페루와 2010년 협상타결 되었으며 콜롬비아, 멕시코와는 협상 중이며 MERCOSUR, SICA와는 논의 중

입.

- ☐ 한국은 1968-2009년 간 중남미 지역에 총 투자액의 7.2% 규모를 투자했음
- ☐ 한국과 FTA를 맺은 칠레의 경우, 칠레의 대 아시아 무역규모는 40% 정도를 차지, 아시아와 교역규모를 늘리고 있음
 - 이는 교역의 다변화를 통해 한 지역의 금융위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하며, 칠레의 경우 아시아와의 교역이 중요한 부분 차지
- ☐ 이에 비해 콜롬비아의 대 아시아 총교역 규모는 10% 미만으로 이는 인근 칠레 및 페루와 비교해서 낮은 수치이며 향후 무역의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 시장과의 교역 확대 필요
- ☐ 콜롬비아는 한국과의 FTA를 통한 무역다변화, 수출 확대, 한국 및 중국의 거대시장 진입 가능하며 한국은 콜롬비아와 천연자원, 공업화 자원 및 신흥력분야 공동 개척 가능

2. 한-콜롬비아 경제협력 분야

(Santiago Pardo, 콜롬비아측 FTA협상대표)

- ☐ 최근연구에 의하면 2040 세계총생산의 66%이 아시아지역에서 생산 됨. 무역 다변화 측면에서 이미 칠레는 아시아와의 교역량의 34%, 페루 22%를 차지하지만 콜롬비아는 5%임
-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직접투자비율은 칠레8%, 브라질 5.6% 이지만 콜롬비아의 경우는 0.7%에 불과 함
- ☐ 한-콜롬비아 FTA는 콜롬비아 인접국(페루, 칠레)과의 경쟁력제고에 그 의미가 있는데, FTA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세장벽에 의한 경쟁력 상실 우려
- ☐ 현재 한-콜롬비아 FTA협상은 공산품, 농수산물 원산지 규정, 의료제품, 지적재산권, 투자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 중에 있음
- ☐ 양 국간 FTA는 여러분야의 산업협력 및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필수적이며 콜롬비아의 한국시장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 할 것 임

3. 한국의 농업현황 및 시장개방 정책

(권대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 먼저 한국 농업의 과제와 이의 극복을 위한 노력 등 전반적 상황과

생산 및 소비 측면에서의 품목별 현황의 소개함.

- 한국 농업은 영세한 영농구조, 낮은 농업소득, 영농세대의 노령화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영농규모의 확대, 생산성의 증대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식문화의 서구화와 경제적 성장으로인해, 쌀 소비의 증가는 둔화된 반면, 축산물과 과일류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다음으로 한국 농업의 국제화노력을 시장개방측면과 국제협력측면에서 소개함.

- 한국 농업시장이 국제적으로 매우 폐쇄적이라는 일부 시각과는 달리, 사실 한국 농업부문은 국제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음.
- 수입시장의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농업의 수입자유화율(import liberalization rate)은 2002년 이후 99.1%에 달하고 있음.
- 관세율 수준의 측면에서도, 농산물의 평균관세율이 콜롬비아에 비하여 높으나, 100%이상의 고율관세품목은 콜롬비아 주력 농산물과 상관이 없는 몇몇 품목에 국한되어 있음.
- 이에 따라 한국의 농산물 수입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콜롬비아로부터의 농산물 수입도 커피, 절화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시장개방노력과 아울러, 한국은 교육, 보건, 행정, 산업 측면에서의 국제협력과 함께, 농업부문의 국제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예컨대 한국은 OECD내의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며, DAC회원국중 19번째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금액을 사용하고 있음.
- 특히 향후 한국의 ODA노력은 금액면에서의 증대노력과 함께, 지역적으로도 남미, 아프리카 등의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임.

□ 한편, 한국-콜롬비아 FTA는 표면적으로는 양자간의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FTA협상 체결국들이 증가함에 따라 협상의 내용상 다자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있음.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나라만을 위한 특혜적 성격의 양보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한국과 콜롬비아는 농업측면에서도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특히 농업협력 측면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위해 상호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한-콜롬비아 자동차 및 부품산업 협력방안

(김태년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통상협력팀 부장)

□ 향후 한-콜롬비아 FTA 성사 시 자동차 및 부품분야에서 상호 협력분야 증대 기대

- ☐ 양국간 FTA협정으로 한국기업의 콜롬비아 타당성 고려 확대 예상
 - 대우버스는 2011년 콜롬비아에 버스조립공장 설립예정
- ☐ 콜롬비아정부가 자동차산업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개발하기 위해 양국간 긴밀한 협조 가능

5. 질의 응답

- ☐ 한-콜롬비아 FTA 타결 전망을 언제로 보는가?
 - Santiago Pardo 콜롬비아수석대표:
양 국간 FTA 타결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최대한 양국간 균형적인 협상을 벌여 적어도 내년(2011)년 중반에는 마무리가 되게 하겠음
- ☐ 콜롬비아 농업제품에 대한 한국과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Santiago Pardo 콜롬비아수석대표:
현재 한국과의 어려운 협상주제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최대한 양국이 이익이 되는 범위에서 협상을 마치려고 노력 중이다
- ☐ 한국시장에 경쟁력이 있는 콜롬비아제품은 어떤 종류가 있겠는가?
 - 권대홍 연구위원:
콜롬비아의 현재 수출품 중 경쟁력이 있는 품목, 예를들어 콜롬비아 커피의 경우에 그 우수한 품질에 비해 한국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낮은 편임.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과 칠레의 FTA를 통해 칠레산 와인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사례는 한국과 콜롬비아 FTA체결시 콜롬비아산 커피산업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 자동차산업의 경우 콜롬비아의 경우 민감한 부문 중의 하나인데 한국과 어떤 협력이 가능한가?
 - 김태년 부장:
발표에서도 언급했듯이 양 국간 FTA는 자동차부품산업에서 상호협력이 가능하다고 봄. 물론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부품산업의 콜롬비아 진출도 예측할 수 있음

6. 콜롬비아 기업인 초청 오찬

- ☐ Santiago Pardo, 콜롬비아측 FTA협상대표와의 개인적 대화 중, 한국의 기체결 FTA를 넘어서는 콜롬비아산 농산물에 대한 한국시장의 추가적 개방요구를 접하게 됨. 이에 한국의 FTA협상 체결국들이 증가함에 따라 협상의 내용상 다자적인 성격이 강화됨에 따라, 어느 한 나라만을 위한 특혜적 성격의 양보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재차 설명. 결국 콜롬비아측 FTA협상대표도 이러한 상황인식을 공유하게 됨.

7. 행사 사진 모음







7. 현지 신문 광고

<콜롬비아 El Tiempo 2010.11.16일자 광고>



l de este año. La primera vez quedó
e la juez que llevaba su caso.

s del CTI

directora del CTI, dice que los buenos resultados se deben a que se cambió la manera de medir el trabajo de los detectives. "Antes, se medía por capturas y allanamientos; ahora es por casos resueltos".

Además, el CTI renovó en un 85 por ciento los laboratorios de investigación científica y forense. Esto mejoró las cifras. Desde el año 2006 el número de casos resueltos pasó de 24 mil a 130 mil y las pruebas aportadas por los laboratorios son aceptadas en un 95 por ciento. Antes, más de la mitad eran rechazadas.

Según la reconstrucción de ese crimen, 'el Carnicero' localizó a Valverde en una de sus fincas en el Valle, y mientras lo torturaba le hacía firmar todo tipo de documentos en blanco, traspasos y poderes. Luego lo baleó. Fue en ese momento cuando lo capturaron, aún con sus manos y su ropa empapadas de sangre.

En el historial criminal del

victimias, le hacia
firmar todo tipo
de documentos
en blanco.

uras para luego arrojarlos a un lago o río.

Ríos Ospina es considerado el principal cobrador de 'don Diego'. Según las autoridades, 'el Carnicero' tenía la misión de recuperar los bienes que el confeso narcotraficante había dejado en manos de testaferreros. Hoy cumple condena en la cárcel de máxima seguridad de Cóbbita, Boyacá.

COREA ES EL MERCADO DEL FUTURO Y ESTA ES SU OPORTUNIDAD

FORO SOBRE EL TRATADO DE LIBRE COMERCIO COLOMBIA - COREA

El TLC entre Colombia y Corea abre posibilidades específicas a muchas empresas colombianas. Expertos de alto nivel de Corea en los sectores Agropecuario, Automotriz y sus partes e Industria en general, expondrán cómo pueden aprovechar los empresarios colombianos las oportunidades que ofrece la firma de este tratado.

EXPOSITORES:

POR KOREA:

- Dr. Won-ho Kim, Director Ejecutivo de KOLAC/ Decano de HUFS - Cooperación Económica después de TLC entre Corea y Colombia.
- Dr. Dae-Hoan Kwon, Research Fellow, Center for Global Cooperation and Research,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KREI)- Situación de la Agricultura y Política de Apertura del Mercado Agrario de Corea.
- Dr. Tae-Nyeon Kim, Direct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eam, Korea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 Cooperación de la Industria Automotriz y sus partes entre Corea y Colombia.

POR COLOMBIA:

- Dr. Santiago Pardo, Jefe Negociador por Colombia, TLC con Corea. - Ministerio de Comercio Industria y Turismo.

Lugar: Auditorio Cámara de Comercio de Bogotá, sede Chapinero (Calle 67 No. 8-32) / Fecha: Noviembre 19 de 2010
Hora: 8am a 1pm cupo limitado Inscripciones al teléfono: 232 3121 o escribanos al correo electrónico: info@colombiocreana.com



KOREAN COUNCIL ON
LATIN AMERICA & THE CARIBBEAN



Cámara Colombiana de Comercio e Industria

nda Windows 7.

más espacio



The power to do more